

Exploring the Direction of Museum-Base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he Case of Moon Ik Hwan's House of Unification

Duk-Lyoul Oh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Education Researc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perated by the Moon Ik Hwan's House of Unification and what future tasks will be.

The House of Unification, established after Moon Ik Hwan's death, contains important materials from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This place conduct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according to Moon Ik Hwan's theory of unification, and approached it as an action research to clarify the direction and tasks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The researcher confirm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rogram through two classes, and explored the research results by executing a second program reflecting th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e should look at Moon Ik Hwan, who reflects his appearance as a Christian figure and his thoughts as a unification activist. In addition, rather than approaching the issue of unification through macroscopic discourse, we should look at it as a problem of daily life. It should be a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that allows you to meet comfortably through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Key Words

Moon Ik Hwan, Moon Ik Hwan Memorial Found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museum education, action research

문익환 통일의 집 사례를 통해 본 박물관 기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탐구

오덕열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실행과정은 어떠한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익환 서거 이후 설립된 통일의 집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은 문익환의 통일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행연구로 접근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자는 두 차례의 수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한 2차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탐구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문익환을 기독교 인물로서의 모습과 통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이 함께 반영된 인물로 조망해야 한다. 또한 통일 문제를 거시적 담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로 바라 봐야 한다.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 주제어 》

문익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평화·통일교육, 박물관교육, 실행연구

I. 들어가는 말

2024년은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가 되는 해이다. 이를 기억하고자 사회 곳곳에서는 컨퍼런스(김태희, 2024), 전시회(이다빈, 2024) 등을 통해 그의 업적을 되새겨 보고자 했다. 이렇듯 문익환은 개신교 목회자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이는 문익환의 장례식 당시 준비했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익환을 칭하는 단어를 ‘목사’가 아닌 ‘선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최형묵, 2018)되었던 만큼, 그의 삶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물론 문익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평가는 판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에 있어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점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 관계의 역사 속에서 문익환이 남긴 족적은 1989년 발표된 ‘4·2 공동성명’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졌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7·4 남북 공동성명’(1972)의 내용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재확인(이유나, 2020a) 했다는 점이나,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 ‘4·2 공동성명’의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분석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이남주, 2018; 이유나, 2007). 물론 문익환은 신학자로서, 통일운동가로서 선구자적인 발자취를 남겼지만, 통일 문제를 교육적 과제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다. 오히려 그의 동생인 문동환은 기독교교육학자로서 기독교와 통일 문제를 교육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문익환의 통일교육적 과제를 탐구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그의 흔적은 현재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곳은 문익환 가족이 거주하던 저택을 박물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장소는 비록 협소하지만, 문익환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와 교육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열린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도 피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의 통일교육은 주제부터 방법론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및 블렌디드러닝 형식으로도 영역의 확장성을 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연결성도 논의되고 있다(박형빈, 2020; 전영선·이윤식, 2023). 기독교교육 역시 여러 형태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과의 만남에 많은 고민들이 묻어나고 있다(손정위, 2024). 이에 따라 기독교통일교육 역시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서 많은 논의들이 파생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장소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기독교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교회, 기독교 배경의 교육기관, 가정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교육의 과제 중 하나가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기능이 다소 약화된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문화와 연결되어 공공의 선(善)

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주연수, 2023). 그러므로 다양한 시각의 기독교 통일교육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기반으로 박물관 기반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 더욱 경색된 남북 관계의 모습,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대한민국 대통령실, 2024) 등 통일정책이 안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선언한 한반도의 적대적 두 국가론(박광연, 2023) 등 작금의 현실을 본다면 문익환이 추구한 통일론이 통일의 집 박물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지닌다.

첫째,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의 평화·통일교육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실행연구를 통해 본 박물관 기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II. 실행연구로 접근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평화·통일교육

1.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문익환 통일의 집은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이하 늦봄사업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1970년대 문익환 가족이 입주했던 곳이다. 문익환 서거 이후 그가 살던 가옥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에 등록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는 25,000여점의 사료와 가옥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준비 모임을 시작했고, 2016년에 박물관 설립 추진을 위한 사단법인 ‘통일의 집’을 발족하게 된다. 이후 가옥 복원 및 모금 등의 준비를 통해 2018년 6월 박물관으로 재개관한다.

통일의 집은 평화와 통일 논의 확대에 건립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교육과 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필요성 또한 가진다. 통일의 집은 문익환의 목사로서의 삶 뿐 아니라 시인으로서, 평화 및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미래 세대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감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억을 통한 성찰을 기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누리집).

결국 통일의 집은 박물관 교육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다양한 소장 자료를 활용한 교육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배움과 가르침의 조화로서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학상장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조용환, 2021).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통일의 집이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실제로 평화·통일 교육 관련 주제는 북한 여성, DMZ생태문화, 개성공단, 민주화운동과 통일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 형식은 대체로 강좌형 특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통일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들의 참여 대상도 주로 성인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통일의 집의 건립 목적에 적합한, 또한 문익환의 통일론이 반영된 평화·통일교육을 실천성의 문제를 담아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그 대상은 통일의 집에서 1차적으로 구성해내고자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설정한다.

2. 연구방법: 실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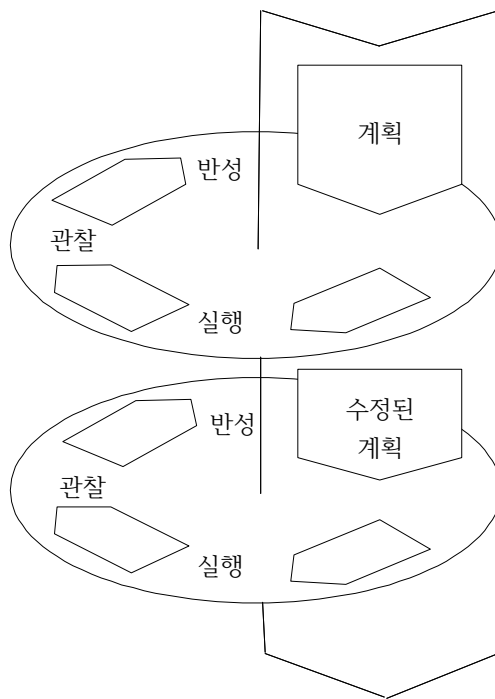
이 연구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에서 수행한 평화·통일교육의 프로그램을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 접근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운동가로서 남북 관계의 주요한 역할을 한 문익환의 통일론과 사상은 후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가기 위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문익환의 사상과 삶의 모습을 담아 운영하고 있는 통일의 집 박물관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은 새로운 영역에서 기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선행연구로 실천된 바를 찾지 못한 용이하지 않기에 연구자의 수업 경험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실행연구는 연구자의 직접적인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Mills,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실험이나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교육 현장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에 관심을 둔다(Stringer, 2007). 이러한 논리는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생산의 주체인 ‘연구자’와 그들이 생산한 이론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실천가’ 사이의 간극을 해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이론은 현실과 무관한 타당성을 지닐 수 없으며, 오히려 실천 지식을 통해 이론이 정당화될 수 있다(McKernan, 1996).

그렇기 때문에 실행연구는 교육실천가들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교육학 분야에서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강지영·소경희, 2011). 그러나 일반 교육학 분야와 다르게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실행연구가 수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 김세광(2015)은 대학생을 위한 ‘회복적정의’ 교과목 개발을 실행연구로 수행하였다. 대학교 교양선택 과목 수강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수정, 보완된 교과목으로 재구성하였다. 실행연구라 직접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정규·정희영(2012), 방승미·정희영(2014)도 주말

교회학교 유아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독교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행연구의 성격으로 접근하였다. 이외에 양적연구 성격의 실행연구(윤덕규, 2021), 실행연구 성격을 지닌 사례연구(김정효, 2020; 정운·정희영, 2015) 등이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일부 이루어졌다.

실행연구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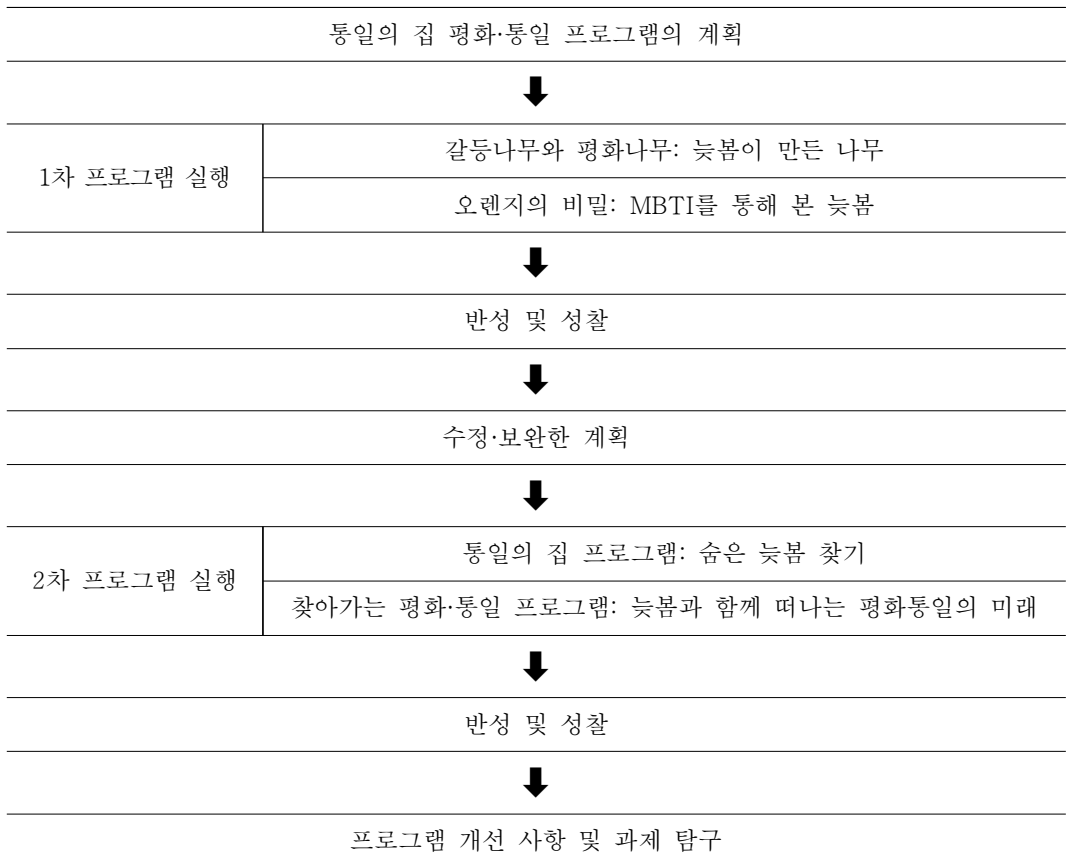


[그림 1] 실행연구 모형(Mckernan, 1996, 48)

실행연구는 미래의 결과 및 행위에 대해 자기 반성적 자세를 토대로 두는 순환구조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계획, 실행, 관찰, 반성으로 구성된 1차 프로그램 이후 새롭게 개선된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구조로 다시 나아간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통일의 집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1차로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기존에 수행하였던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문익환이라는 인물 소개와 통일의 집이라는 공간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실행하였다. 이 때, 두 차시의 수업을 운영하며 학습자들의 모습과 반응들을 관찰하였고, 수업 후 작성한 평가지 및 면담 등을 통해 반성 및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기반으로 수정된 계획을 세웠고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차 프로그램은 장소에 따라 성격이 다른 수업

을 진행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 사례는 통일의 집에서 진행된 수업이었고, 다른 사례는 외부에서 운영된 수업이었다.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형태의 수업은 통일의 집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기반의 평화·통일교육으로서 기독교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으로의 확장성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적 영역으로서 그 지평을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2] 연구의 흐름

Ⅲ. 1차 프로그램의 실행

1.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

연구자는 2023년 4월 늦봄사업회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전술한대로 늦봄사업회는 통일의 집을 기반으로 문익환의 사상을 담아내는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주로 강연 형식이었다.

첫 기획회의가 열렸다.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살아왔던 활동가로서, 북한학 및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던 연구자는 과연 어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많은 교육 현장은 어느 정도의 학력과 그에 따른 학문적 성과가 있는 강연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나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략 ‘이론’과 ‘실천’ 영역으로 구분되는 교육현장은 이와 같은 간극을 메워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통일교육 영역은 이 부분이 더욱 강도되는 경향이 있다. 통일교육 분야의 연구자들로 알려진 많은 분들이 교육학보다는 주로 북한학, 정치학, 사회학 등 통일담론을 배경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오덕열·강순원, 2021). 또한 교사 혹은 강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실천가이지만 전문성 부족이라는 제한점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다보니 결국 연구자들에게 교육 현장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구조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 현장의 배경 속에서 연구자는 늦봄사업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까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인 통일운동 기관과는 달리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문익환의 통일관이 일반 대중들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라는 장소에서 펼쳐져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익환이라는 인물과 박물관이라는 장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 지식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첫 회의에 참석했다.

첫 회의는 연구자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우선 늦봄사업회는 기독교 단체의 성격보다는 일반적인 사단법인의 성격이 더 크게 나타남을 토대로 몇 가지 프로그램의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문익환 목사의 삶을 고려할 때,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둘째, 통일의 집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문익환이라는 개인 인물을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셋째,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넷째, 기존과 같이 강의 중심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에 관계자 분들은 일부 공감을 하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했

다. 우선 기독교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익환 목사의 삶을 비추어볼 때, 기독교라는 종교는 삶과 얹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목사’보다는 ‘선생’의 호칭이 더 어울린다는 측면에서(최형목, 2018) 그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를 교육’하는 관점이 아닌, ‘교육 안에 기독교적 요소가 담겨있으면 된다.’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었다. 또한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적극적 동의를 이끌었다. Z 혹은 알파 세대들에게 ‘통일’은 비교적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뿐더러 강의식 수업은 더욱 지루함을 가져오기에 이 부분은 크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원칙, 문익환 목사에 대한 비중이 작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는 통일의식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과 문익환 목사가 기여한 통일 분야의 역할 강조가 퇴색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지적 영역에 머물러 교수자가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에만 관심을 둘 경우, 무관심의 영역 혹은 듣기 싫은 수업의 이미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오덕열, 2019)을 다시금 언급하였고,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운영하여 이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회 혹은 기독교 기관에 속한 참여자들이 아니라, 박물관에 관심을 가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문익환 통일의 집은 기독교 단체이기보다는 박물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비기독교인도 친숙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으로 기획을 세울 수 있었다.

워크숍은 후술할 다음 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워크숍 종료 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첫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시금 회의를 통해 학습의 주요한 목표는 ‘통일교육도 흥미로울 수 있구나!’로 정했고 이러한 연구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언급하여 통일의 집 평화·통일교육의 강의안이 완성될 수 있었다.

2. 1차 프로그램의 수행

이 프로그램은 ‘늦봄청소년 평화통일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연구자는 통일의 집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교안 및 교육과정을 다듬어 갔지만, 그래도 총 4회 운영되는 수업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우선 1차 프로그램으로 묶인 두 번의 수업을 통해 개선사항들을 찾아내고, 이를 반영해 2차 프로그램인 3, 4회차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다만 3, 4회차 수업은 성격이 다소 달랐다. 3회차 수업은 통일의 집에서 이루어지지만, 4회차 수업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우선 두 번의 교육이 처음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갈등나무와 평화나무’, ‘오렌지의 비밀’을 활용하여 교안을 작성했다.

1) 갈등나무와 평화나무: 늦봄이 만든 나무

첫 시간은 ‘갈등나무와 평화나무’를 기반으로 통일의 집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 수업은 모둠별로 큰 용지에 나무를 그린 다음, 나무에 대한 이름을 짓는 활동으로 시작한다. 이 때, 나무 그림은 뿌리, 줄기, 잎사귀가 드러나도록 그려야 한다. 이후 다양한 모양의 포스트잇에 ‘분단의 현실’과 ‘원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쓴 뒤, 잎사귀와 뿌리 부분에 붙이고, ‘분단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미래의 모습’은 줄기와 열매 부분에 붙이게 된다. 물론 각 위치에 붙인 포스트잇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모둠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발표자도 선정한다.



[그림 3] 갈등나무와 평화나무 결과물

‘갈등나무와 평화나무’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의 원인 및 분단 현실을 교수자가 설명하는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특정한 정답을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양한 사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금 과격할 주장도 펼친다하더라도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여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문익환의 통일관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익환에게 통일은 좌우 특정한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이유나, 2020b). 이를 위해 북한은 자유 이념으로, 남한은 평등 이념으로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피력했다. 이러한 사

상은 각각의 진영에서 해석하는 분단과 통일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정답이라는 틀에 비추어 승패의 개념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즉, 여러 의견과 다양한 입장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이 논의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결국 공론의 장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이후 문익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는데, 이 시간은 길지 않다. 그리고 통일교육인 만큼 기독교적인 요소보다는 남북 관계의 주요한 지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중심에 두었다. 그 내용은 첫째, 국제체육 대회에서 공동으로 쓸 남북공동응원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는 아리랑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새 노래를 지을 때 한쪽이 작사를, 다른 한쪽이 작곡을 담당해 남북이 함께 만드는 노래가 완성되기를 기대하였다. 둘째, 남북공동 국어사전을 만들고, 셋째,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교류와 넷째, 남측 출판도서를 판매할 서점을 북측에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김형수, 2004). 물론 이 제안이 명확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네 번째 제안을 제외하고 앞선 세 가지 제안은 남북 관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지식 전달의 방식으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이 ‘통일에 있어 늦봄이 심은 나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 답은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나간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늦봄이 심은 나무’의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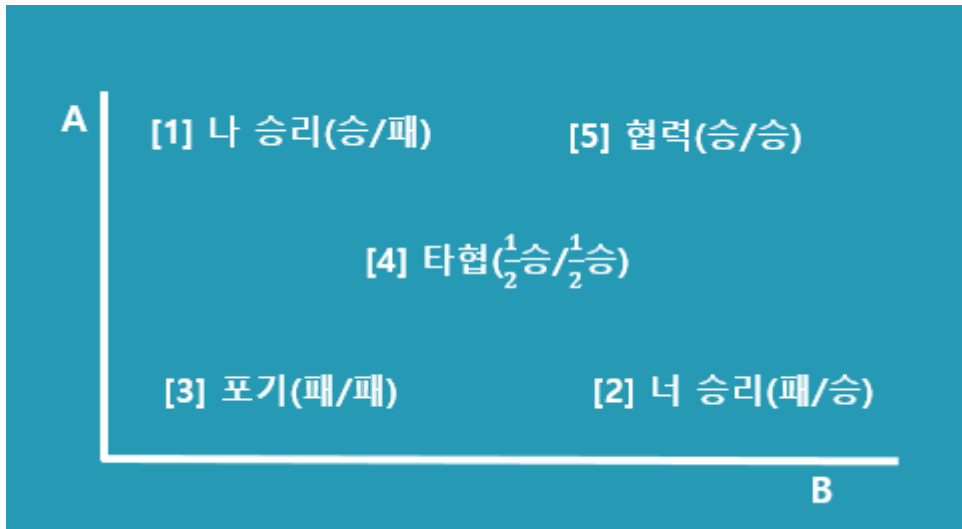
2) 오렌지의 비밀: MBTI를 통해 본 늦봄

두 번째 수업은 ‘오렌지의 비밀’을 기반으로 ‘MBTI를 통해 본 늦봄’으로 기획했다. ‘오렌지의 비밀’은 평화교육 현장에서 차용되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통일교육에 맞게 응용한 프로그램이다. 갈등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찾아가는 목표를 가진다.

우선 3-4명으로 모둠을 편성하여 A4 용지, 포스트잇, 매직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우리 모둠에 오렌지 하나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라’고 질문을 던진다. 이 때 생각나는 방법들을 각각 포스트잇에 적는다. 모둠별로 내용이 정리되면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 제기되는 갈등 상황을 학습자들의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사회 및 집단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바라보기에 없애야 할 요소로 생각하는 면이 짙다. 그러나 평화교육에서는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갈등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Lederach, 2004; 서보혁·정옥식, 2016; 정진, 2016). ‘해결’이 아닌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갈등 상황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평

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림 4]를 화면에 띄우고 각 번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A축은 ‘나’의 에너지, B축은 ‘상대’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축이고 각 영역에 따라 갈등 전환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제 앞서 포스트잇에 적었던 각각의 내용들은 과연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모둠원들끼리 토의하도록 한다.



[그림 4] 갈등 전환의 5가지 유형

예를 들어, ‘오렌지를 모델로 하여 정물화를 그린다.’의 경우 일부는 모두가 오렌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5번(승/승)을 선택했지만, 일부는 아무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3번(패/패)로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남북관계 속 의미 있는 사진들을 통해 생각들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진 한반도 역사 속에 독특한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고 소개하며 문익환의 행적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Z세대, 알파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MBTI와 접목시켜 문익환 목사의 성격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구상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집 발간 자료인 「월간 문익환」을 기반으로 하였다. 「월간 문익환」은 2022년 3월부터 발간한 일종의 아카이브 자료로서 시즌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즌1은 ‘문익환의 부캐 탐색’이라는 주제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즌2는 ‘문익환과 사람, 장소, 이야기(사건)’을 주제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간되었다. [그림 5]와 같이 「월간 문익환」 2023년 2월호에는 ‘MBTI로 본 늦봄’이라는 기사가 있다. 저자는 문익환에 대한 여러 자료를 통해 성

격 유형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는 학습자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저자가 발견한 문익환의 성격 유형을 수업 시간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직접 핸드폰을 사용해 문익환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 뒤, 자신이 생각하는 MBTI 유형을 선정해 보도록 했다. 결국 각 모듈에서는 문익환의 성격 유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벌어졌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처럼 ‘오렌지의 비밀: MBTI를 통해 본 늦봄’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들을 편안한 공간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림 5] MBTI로 본 늦봄

3) 활동 평가와 성찰을 통해 본 개선 사항 탐구

‘갈등나무와 평화나무: 늦봄이 만든 나무’, ‘오렌지의 비밀: MBTI를 통해 본 늦봄’으로 구성된 1차 프로그램의 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참여 소감 형태로 평가서를 취합하기는 했으나, 몇몇의 참여자들과는 간단한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수업 모두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좋은 강의였다거나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평가 속에서 활동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음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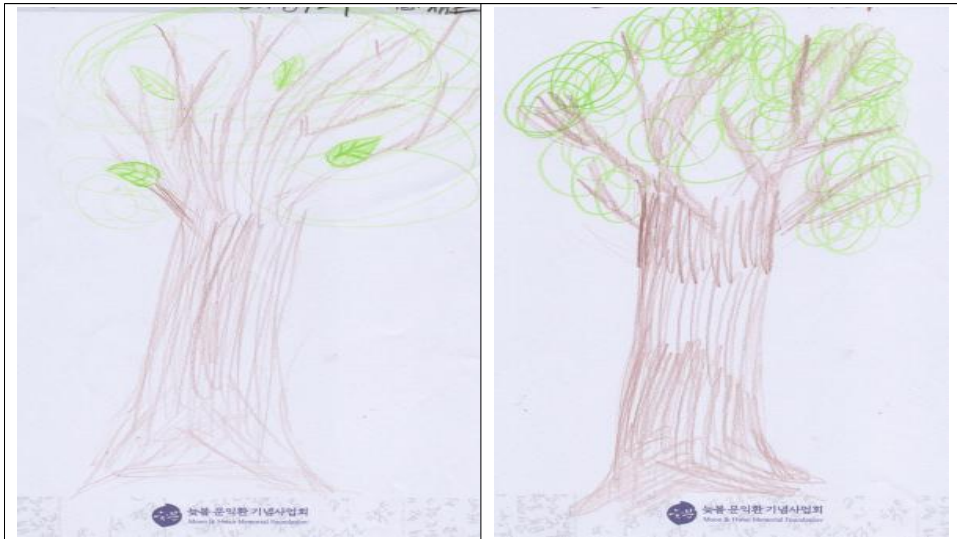
나무를 그리고 거기에 써서 발표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남북한이 친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실도 알게 되어 신기했다.

오렌지로 할 수 있는 것, MBTI 맞추기 등 활동 위주로 재미있게 준비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리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양한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해보며 통일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생각들을 해 본 것 같다. 나중에도 수업을 또 듣고 싶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에게는 그림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그림 6]과 같이 푸르른 잎이 나기 시작하는 나무를 그린 친구들도 있었다.



[그림 6] 1차 프로그램 평가 중 그림으로 표현한 사례들

그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개선사항들이 있었다. 우선 수업 내용에서 문익환과 관련된 내용을 최소화하다보니 통일의 집의 특수성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관계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는 박물관교육으로서의 성격도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수업 시간의 활동과 전시물 관람 시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즉, 수업을 마친 후 전시실을 둘러봄으로써 문익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는데, 실질적인 교육 활동과의 맥락성은 결여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박물관이라는 장소성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귀결됐다. 그러나 학습자들을 데리고 참여한 담당 교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 큰 문제제기는 없었다.

다음으로 문익환에 대한 인물 소개가 더 있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참여 소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익환 선생님이 대해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오히려 너무 한 사람에 몰입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가볍게 배운 것 같아 마음에 든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다

오늘 수업은 무언가 심각하다. 문익환 통일의 집. 아... 모르겠다.

한 인물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면 교육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은 나름 타당했다. 그러나 문익환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적다보니 통일의 집이라는 특수성이 너무 간과한 점이 포착되었다, 물론 다음 방문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작은 박물관으로서의 특성을 가미함으로써 문익환에 대한 느슨한 접근이 필요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사례와 문익환의 삶을 연결시키는 과제로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문익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높지 않아 수업 효과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함과 동시에 여전히 지루하고 어려운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흥미가 떨어지는 요소는 문익환의 통일관에 대한 설명, 목사로서의 삶의 모습 등이었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학습자들의 경우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문익환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통일관이 통일의 집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임에는 틀림없지만, 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친숙한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지식적 내용의 비중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감지하였다. 유익하기는 했지만 지루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 통일교육 강의가 아닌 박물관에 찾아와 듣게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2차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문제점과 2차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1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문제점	2차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개선사항
통일의 집 박물관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박물관교육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 전시물을 활용한 활동을 수업 활동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
통일의 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문익환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함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와 문익환의 삶을 연결시키는 교육과정을 구상
흥미도가 떨어지므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지식적 내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IV. 개선 프로그램의 실행

개선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1차 프로그램 같이 통일의 집에서 수업을 운영하되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운영하는 수업으로서 통일의 집의 철학과 가치를 외부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1. 통일의 집 프로그램: 숨은 늦봄 찾기

‘숨은 늦봄 찾기’는 앞서 실행한 ‘갈등나무와 평화나무: 늦봄이 만든 나무’, ‘오렌지의 비밀: MBTI를 통해 본 늦봄’을 기반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다만 통일 문제를 과도하게 다루는 방식의 내용적 무게감을 줄이고 문익환에 대한 소개를 하되 목회자보다는 평범한 인물로서의 모습을 조망함으로써 내러티브를 형성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우선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며 이 선을 넘어간 인물이 문익환임을 언급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문익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휴전선의 모습 또한 철조망에 둘러싸인 높은 장벽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7]과 같이 휴전선은 판문점의 연석을 제외하고는 200여 미터마다 한 개씩 꽃혀 있는 표지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남북을 왕래하는 출입사무소 이야기도 전개된다. 공항에서 흔히 만나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국’자가 있지만, 남북출입사무소에는 [그림 8]과 같이 ‘국’자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남북을 다른 나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북한의 두 국가 선언으로 인해, 이 부분에 의아한 참여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의미는 그렇지 않음을 논의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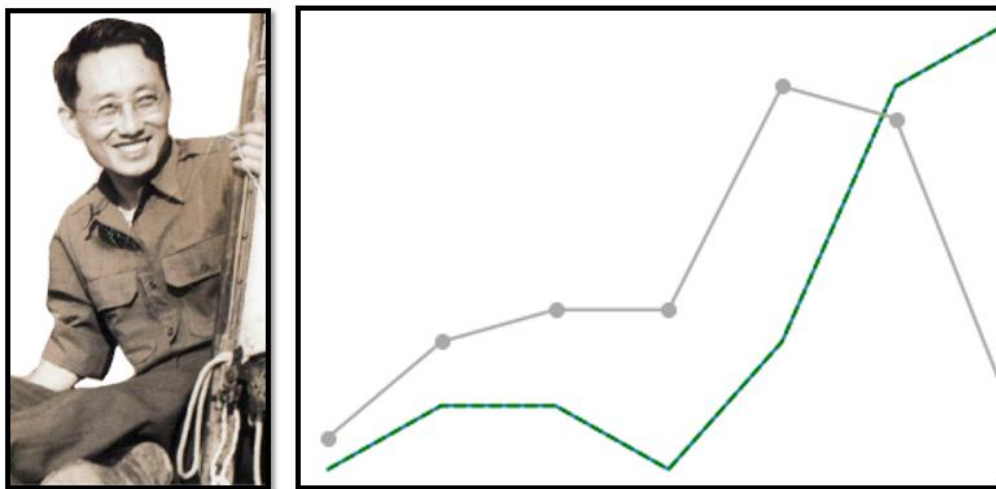
[그림 7] 휴전선 표지판



[그림 8] 남북출입사무소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실제 휴전선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넘지 못하는 선이 아님을 알려 주고, 이 생각을 실천한 인물로 문익환을 설명했다. 이야기의 소재는 「월간 문익환」(2022년 6월호)을 활용했다. 미국 프린스턴의 신학생이었던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사령부에 자원해 미군의 통역관이 되었다. 그런데 휴전협정에서 남한 측 대표의 발언권이 없는 상황을 목격하며 약소국의 아픔을 느낀 문익환은 분단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6·25전쟁 시기, 미군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사연은 문익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통일 문제를 더욱 가까이 하게 된 디딤돌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 ‘목사’ 문익환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제는 문익환과 관련된 연구자의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박물관교육으로 넘어간다. 통일의 집은 작은 박물관으로서 공간 곳곳에 문익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안방은 서재 및 침실, 손님 접대실로 사용되던 방으로 성서 번역을 위한 연구 자료 및 저서들, 아내 박용길과 주고받은 편지와 가족사진들, 북측에서 준 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세 아들이 살았던 공간은 문익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첫 수감 때 입었던 수의와 수인 번호 등이 소장되어 있다. 마루에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소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문익환의 붓글씨를 볼 수 있는 물품들, 문익환 얼굴이 그려진 판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목상할 수 있는 공간인 기도방과 통로에 배치되어 있는 연보, ‘문익환의 길’이 있다.



[그림 9] 문익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참여자들에게 이 전시 공간을 편안하게 둘러보고, ‘문익환의 길’에 주목하게끔 했다. 그리고 활동에 들어간다. 문익환의 삶을 보고 그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림 9]와 같은 모델을 제시하면서 가로축은 시기, 세로축은 자신이 평가하는 문익환의 삶으로 설정한

다. 시간을 주고 학습자들의 각각의 그래프를 완성시키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왜 그 시점에 위치한 문익환의 삶을 좋게 혹은 나쁘게 평가했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시간을 다져나간다. 이 활동은 박물관 및 전시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습득이 아닌 자신이 구성한 지식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정혜연, 2015). 다시 말해, 실천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문익환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정부 기관 등의 권력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통일론을 상기해 본다면 통일의 집 평화·통일교육 역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철학이 내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에 관한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역사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재미없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그래프 그리는 활동(문익환 인생 그래프)도 재미있었다.

아주 재미있었다. 북한이랑 다시 친해져 전쟁이 안 나면 좋겠다.

문익환이라는 인물을 새로 알게 되었다.

통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이 수업을 통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물론 전시실을 활용한 교육에도 요구되는 개선점이 있었다.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야기 해 준 내용은 전시실을 보고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할 시간도, 여유도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2. 찾아가는 평화·통일 프로그램: 늦봄과 함께 떠나는 평화통일의 미래

이 수업은 통일의 집에 평화·통일교육을 신청한 서울 H고등학교에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평화·통일 프로그램은 ‘오렌지의 비밀: MBTI를 통해 본 늦봄’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외부에서 운영되는 수업은 앞서 확인한 수업들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학습자들에게는 ‘문익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되므로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문익환 통일의 집)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업 내용(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다. 또한 정규 수업이 아닌 강좌들에 대해서는 휴식 차원의 이미지로 각인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초반에 문익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렌지의 비밀 활동에서 남북관계에 주목하는 부분은 현 시점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등의 이야기와 함께 남북이 만났던 상황 등을 조망하였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행사가 좋은 예로 활용되는데, 실행연구가 진행되던 당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뉴스들을 언급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여자 역도에서 동메달을 받았던 김수현 선수는 시상식 후 기자회견장에서 냉랭하던 북한 선수들을 상대로 편안하게 인터뷰에 참여하며 웃음을 자아냈는데(신현보, 2023), 이 사연을 소개했다. 또한 구면이었던 북한 코치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해 주어 힘을 얻었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은, 2023). 이어서 남북공동응원가를 제안했던 문익환의 이야기를 가볍게 던졌다. 그리고 최초로 올림픽에서 남북공동입장을 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개막식 장면, 그 때 들었던 한반도기, 울려 퍼진 음악인 아리랑 등을 소개했다.

문익환의 MBTI 유형 찾기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 중 일부 시간에 운영되는 상황이었기에 핸드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문익환에 관한 몇 가지 단서들을 준비해가야 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통일의 집에 직접 방문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문익환에 대한 소개가 설명으로나마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가로서의 모습과 시인의 모습을 함께 소개할 때, 학습자들의 고민은 커진 듯했다. 이를 위해 옥중서신과 저작시를 함께 소개하였다. 옥중서신의 경우, 당시 편지를 주고 받을 때, 주요 인물들과 장소를 암호로 표현했던 상황이나 목회자이자 성서학자였던 그가 58세에 민주화 및 통일운동가로 살게 된 모습 등(오명진, 2020)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 운동주와의 인연, 신앙인이며 목사로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평가,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반영된 문학가의 삶 등(장만식·김병선, 2020)을 소개하였다.

문익환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토대로 통일 문제를 연결해보며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학습자들은 문익환의 성격 유형을 진단해 보았다.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거대담론인 분단과 통일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문익환이라는 인물이 목사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의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결론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참여했던 학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서로 협력했던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 북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의 상황과 관계없이 훨씬 전부터 통일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아직 지치기엔 이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신 늦봄 문익환 선생님께서 노력하셨듯이 통일은 결국 모두가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각자 자신이 흥미롭게 느끼는 분야에서 ‘통일’을 연결 시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와 닿았다. 나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통일의 집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전시 연계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확장성의 출발 지점을 통일의 집으로만 삼을 필요는 없다. 문익환이 걸어온 길과 그의 사상, 또 근현대사의 많은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통일의 집의 교육적 재산들을 가지고 교육 현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목회자인 문익환이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교회 혹은 기독교 진영 안에 가두지 않았듯이, 통일의 집에서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통일’ 자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단이 지닌 불편함을 깨닫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곧 평화의 길이라는 의미를 학습자들과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익환이 이야기한 통일을 교육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연구를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실천 과정 속에서 “통일은 됐다!”라고 외치는 문익환의 목소리가 통일의 집의 모습을 빌려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V. 나가는 말

문익환 목사를 배경으로 하는 박물관에서의 통일교육은 매우 큰 복잡성을 띤다. 우선 문익환 ‘목사’의 가르침과 사상을 참여자들에게 전파해야할 목적을 지닌다. 특히 통일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그의 발자취는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너무 먼 과거로 인식되는 그의 삶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전달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기독교 인물로서의 모습과 통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적 영역의 기독교교육을 상기해 본다면 문익환의 사상이 반영된 통일교육은 일반 교육학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문익환 목사와 같은 특정 인물이 단순히 기독교 진영에 한정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함을 전제한다. 교회의 지도자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얽혀 있는 시대적 지도자는 종교, 지역, 사상과 관계없

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스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의 집이 가지는 박물관교육으로서의 과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은 박물관인 통일의 집은 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하는 데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전술한바와 마찬가지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문익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보다는 학습자들 스스로 인물을 탐구해 내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익환을 삶을 중심에 두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그가 살아왔던 과거가 현재의 나‘들’과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작은 박물관이 지니는 특성을 잘 활용하여 교육 문화를 확대시킬 전략도 추구해야 한다. 실제로 2024년 6월부터 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위해 설립된 작은 박물관들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문익환 통일의 집을 비롯하여 김근태기념도서관, 박종철센터, 이한열기념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근현대사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등 8곳을 방문하여 스탬프를 모아 완료 인증을 받는 프로젝트다. 작은 박물관들은 일반 박물관에 비해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고, 비치된 자료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인물들이 지닌 사상과 행보를 공유하고, 근현대사 속에서 생성된 배움들을 향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또한 요청된다. 이러한 과정은 문익환이 내면화했던 성서의 가르침과 기독교철학이 교육으로 확장되는 결과로 나아갈 것이다.

통일의 집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 연구자는 실행연구를 통해 많은 성찰과 배움을 얻게 되었다. 특히 프로그램 실행 이후 학습자 및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피드백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수에 따른 수업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제한점은 있다. 하지만 교육 실천의 과정 속에서 전시실을 활용한 연계 교육, 박물관 아카이브인 「월간 문익환」의 활용, 목회자인 ‘목사’보다는 사회의 지도자로서 부르게 되는 ‘선생님’이라는 호칭, 시대상을 적절하게 반영한 교육과정의 구성 등의 요소를 탐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문익환 추구했던 평화통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상과 행동은 현재도 통일의 집에 살아남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장지영, 소경희 (2011). 국내 교육관련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197-224.
[Kang. J. & So. K. (2011). Educational Action Research in Korea.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3), 197-224.]
- 김세광 (2015). 대학생을 위한 '회복적정의' 교과목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43, 47-76.
- [Kim. S. (2015). Development of a 'Restorative Justice'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47-76.]
- 김정효 (2020).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사례 -E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4, 325-361.
- [Kim. J. (2020). A Case Study of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in a Christian Elementary School.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4, 325-361.]
- 김태희 (2024. 5. 20). 한신대,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 기념 컨퍼런스 개최. 경향신문,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5201755001>, 추출일 : 2024. 8. 13.
- [Kim. T. (2024. 5. 20). Hanshin University Holds Conference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Pastor Moon Ik-hwan's Death. *Kyunghyang shinmun*]
- 김형수 (2004). *문익환 평전*. 서울: 실천문학사.
- [Kim. H. (2004). *Moon Ik-hwan's Biography*. Seoul: Silcheon.]
-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4. 8. 15).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LA1AttyE>. 추출일 : 2024. 8. 16.
-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4. 8. 15). Let's move forward to a greater and unified Korea for complete liberation]
- 박광연 (2023. 12. 31).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남북관계 선언...화해·통일 대신 전쟁으로.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12311549001>. 추출일 : 2024. 8. 16.
- [Park. K. (2023. 12. 31). Kim Jong-un declared "two hostile countries" as war instead of declaring, making, reconciling, and unifying inter-Korean relations. *Kyunghyang shinmun*]
- 박형빈 (2020). 인공지능 시대 비판적 반성 사고를 위한 P4C와 미디어 리터러시 융합 통일교육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68, 57-81.
- [Park. H. B. (2020). P4C & Media Literacy Convergence in Reunification Education for Critical Reflection Thinking.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8, 57-81.]
- 방승미, 정희영 (2014). 기독교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연구*, 34(4), 227-249.
- [Bang. S. M. & Jeung. H. Y. (2014). The development of a re-education program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reinforcement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4), 227-249.]
- 서보혁, 정옥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 사람들.
- [Suh. B. & Cheong. W. (2016). *Peace Studies and Peace Movement*. Seoul: Mosinsaram]
- 손경위 (2024).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독교교육 연구동향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80, 35-75.
- [Son. J. W. (2024). Analysis of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Trend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80, 35-75.]
- 신현보 (2023. 10. 6). 근엄하던 북한수들도 웃었다...역도 김수현 뒤라 했길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600557>. 추출일: 2024. 7. 16.
- [Shin. H. (2023. 10. 6). The stern North Korean players also laughed--What did Kim Soo Hyun say about weight lifting. *Hankyung*]

- 오덕열 (2019).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연구. **인격교육**, **13(1)**, 75-107.
- [Oh, D. L. (2019). A Study on Unification Education as Peace Education for Cultivating Peace Sensibility.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3(1)*, 75-107.]
- 오덕열, 강순원 (2021). 평화교육으로의 재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국제이해교육연구**, **16(1)**, 33-65.
- [Oh, D. L. & Kang, S. W. (2021). A Critical Review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Reconstruction into Peac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6(1)*, 33-65.]
- 오명진 (2020). 문익환 옥중서신의 특성과 활용. **기록학연구**, **66**, 317-355.
- [Oh, M. (2020). The Characteristics and Use of Moon Ik-Hwan's Prison Lett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6*, 317-355.]
- 윤덕규 (2021). 대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성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68**, 103-128.
- [Yun, D. (2021). The Development of the Bible Education Program for Enhancing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and Its Effectiveness.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68*, 103-128.]
- 이남주. (2018). 문익환의 통일 사상의 주요 쟁점과 현재적 의의. **신학사상**, **181**, 81-106.
- [Lee, N. (2018). Key Issues of Moon Ik Hwan's Thoughts on Unifica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ological Thought*, *181*, 81-106.]
- 이다빈 (2024. 6. 7). [이로운넷시]강북문화재단,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 기념전 '늦봄, 평화를 심다' 개최.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추출일 : 2024. 8. 13.
- [Lee, D. (2024. 6. 7). [Profit Exhibition] The Gangbuk Cultural Foundation holds an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Pastor Moon Ik-hwan, "Late Spring, Planting Peace". Eroun.net]
- 이유나 (2007).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173-198.
- [Lee, Y. N. (2007). The Formation and Character of the Unification Theory of Moon, Ik-Hwan.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27*, 173-198.]
- 이유나 (2020a). 문익환의 민주화·통일 실천의 변증법적 성찰, **신학사상**, **190**, 355-387.
- [Lee, Y. N. (2020). The Dialectical Reflection of Moon Ik-Hwan's Practice of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Theological Thought*, *190*, 355-387.]
- 이유나 (2020b). 문익환의 평화·통일 사상 담론과 성찰. **신학사상**, **188**, 191-225.
- [Lee, Y. N. (2020). Moon Ik-Hwan's Discourse and Reflection on the Idea of Peace and Unification. *Theological Thought*, *188*, 191-225.]
- 이은 (2023. 10. 6). 북한 코치도 "정신 바짝 차려"...녀역도 김수현, 동메달 빛이야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0611024617031>, 추출일 : 2024. 7. 16.
- [Lee, E. (2023. 10. 6). The North Korean Coach Is "Wake Up"...Kim Soo-hyun in 女 Station, Behind-the-scenes Story of the Bronze Medal. Money today]
- 이정규, 정희영 (2012). 주 5일제에 따른 주말교회학교 유아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 **기독교교육논총**, **30**, 225-254.
- [Lee, J. K. & Jeoung, H. Y. (2012). A Development of Weekend Church School Eco-cente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in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for the Five-day Week System.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225-254.]
- 장만식, 김병선 (2020). 문익환 시에 담긴 삶과 죽음 인식 고찰. **문학과 종교**, **25(4)**, 111-137.
- [Jang, M. S. & Kim, B. (2020). A Study on Life and Death in Moon, Ik-hwan's Poems. *Literature and Religion*, *25(4)*, 111-137.]
- 전영선, 이윤식 (2023). 디지털 시대 뉴미디어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북한학보**, **48(2)**, 44-73

- [Jeon, Y. & Lee, Y. S. (2023). New Media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and Tasks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48(2), 44-73.]
- 정윤, 정희영 (2015).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20(3), 171-205.
- [Jeong, Y. & Jeoung, H. Y. (2015). A Case Study on the Teacher's Experience in the apply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20(3), 171-205.]
- 정진 (2016).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남양주: 피스빌딩.
- [Jung, J. (2016). *Restorative Life Education Class Operation Guidebook*. Namyangju: Peace Building.]
- 정혜연 (2015).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미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통한 지식 창조를 위한 학습 환경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 16(3), 115-136.
- [Chung, H. (2015). Museum Education in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Learning Environment for Creating Knowledge through the Cases of Smithsonian Institute Natural History Museum and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3), 115-136.]
- 조용환 (2021). **교육다운 교육**. 서울: 바른북스.
- [Jo, Y. (2021). *An Educational Education*. Seoul: Barunbooks.]
- 주연수 (2023). 코로나세대 공적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연구 : 언캐니(Uncanny)와 성육신적 연대. **기독교교육논총**, 74, 33-35.
- [Joo, Y. (2023). Public Practice and Christian Education for Covid-Generation: Uncanny and Incarnational Solidar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4, 33-35.]
- 최형목 (2018). 꿈을 현실로 산 신앙의 선구 문익환 목사 -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그의 내면세계와 실천적 삶. **신학사상**, 181, 51-79.
- [Choi, H. (2018). Moon Ik Hwan, A Pioneer of Faith who Actually Lived a Dream - His Inner World and Practical Life as Pastor and Theologian. *Theological Thought*, 181, 51-79]
- Lederach, J. P. (2014). **갈등전환: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박지호 역. 서울: KAP. (원저 2003년 출판)
- [Lederach, J. P. (2014). *The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Translator: Park, J. Station. Seoul: KAP.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0)]
- McKernan, J. (2015). **교육과정 실행연구**. 이광우 외 7인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 1996년 출판)
- [McKernan, J. (2015). *Curriculum Action Research* (2nd ed.). Translator: Lee, G. Station. Paju: Kyoyookbook.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6)]
- Mills, G. E. (2005).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강성우 외 2인 역. 서울: 우리교육. (원저 2003년 출판)
- [Mills, G. E. (2003). *Action Research*. Translator: Kang, S. Station. Seoul: Urikyoyuk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3)]
- Stringer, E. T. (2007). *Action Research*.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